

궤도진입 절차

무궁화위성 본체

무궁화호 인공위성 발사준비 완료

우리나라를 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줄 무궁화 위성이 8월 3일 발사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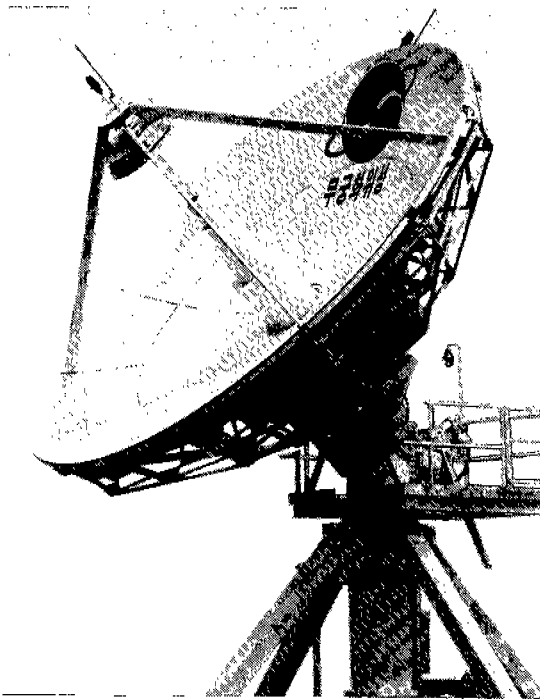
7월 24일 한국통신 위성사업단측은 제작완료된 무궁화 위성은 지난 6월 30일 록히드마틴사에서 발사장으로 운반되었으며, 7월 2일부터 8일까지 운반된 위성의 최종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동중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7월 17일에는 위성에 연료를 주입하고 원지점모터를 장착한후 7월 18일 한국통신, 록히드마틴, 맥도널더글러스등 3사가 위성상태를 최종확인하고 발사주관사인 맥도널더글러스사에 위성을 공식 인도했다.

발사체는 123단 로켓과 9개의 보조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성체가 3단 로켓에 조립되고 최종시험이 끝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위성 발사 약 15일후 운용궤도(정

위성발사 전후의 주요 일정

- 7. 18 위성체 인도
- 7. 20 위성체와 3단 로켓 결합
- 7. 20 발사장 준비상태 점검회의
- 7. 24 위성체와 발사체 결합
- 7. 28 페어링 결합
- 7. 28 비행준비상태 점검회의
- 7. 31 2단 로켓 추진제 충전
- 8. 2 발사준비상태 점검회의
- 8. 2 카운트 다운
- 8. 3 발사 (20:25)
- 8. 3 위성분리, 천이궤도 진입 (21:31)
- 8. 4 위성관제 시작 (01:25)
- 8. 4 제1원지점 도달 (02:55)
- 8. 6 제6원지점 도착, 원지점 모터 점화
- 8. 7 태양전지판 전개, 위성체 자세제어, 태양전지판 방향조절
- 8. 18~19 최종 정지궤도 진입 (동경 116도)



위성 관제 안테나

지제도)에 진입되면 위성 관제권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한국통신 용인 주 관제소로 이양된다. 위성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한 궤도내 시험이 3개월간 실시되며 동 시험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위성통신서비스가 개시된다.

통산부, 「장기산업발전비전」 수립 위한 최종보고서(안) 성안

공업발전법에 의한 「장기산업발전비전」 수립을 위해 통상산업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항공기산업 및 우주산업 부문의 최종보고서가 7월말까지 작성 완료되어 제출된다.

「항공기산업 장기발전비전」 보고서를 작성중인 항공기산업 분과위원회(위원장 노오현 서울대 교수)는 지난 7월 14일(금) 삼성항공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곧 최종

보고서(안)를 성안, 7월말까지 통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2005년 국내 항공기산업의 위상을 생산액 105억불, 수출 65억불 규모의 성장으로 세계 10위권 도약과, 부품 하청 수출의 단계에서 완제품의 수출단계로 고도화 시키는 것을 발전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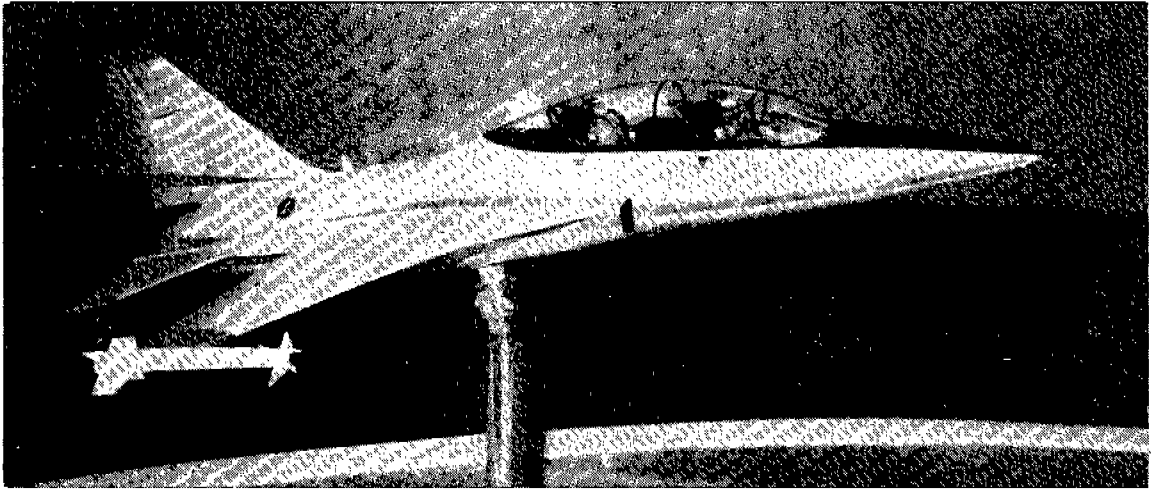
또한 「우주산업 장기발전비전」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우주산업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교수)는 이보다 앞선 7월 5일(수) 서울대에서 제5차로서 최종회의를 개최, 최종보고서(안)를 확정했다. 동 보고서(안)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 기본목표를 2005년까지 세계 10대 우주산업국진입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가 2000년까지는 독자 위성 운용국가로, 2005년까지는 아태 지역 우주산업 중심국가로 그 위상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 최종보고서(안)은 7월 24일(월) 통산부에 정식 제출되었다.

삼성항공, KTX-2 사업 본격 추진

삼성항공은 지난 7월 7일(금) 대전 소재의 삼성항공 우주연구소에서 KTX-2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동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등 국내 20여개 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동 설명회에서 KTX-2 국내 주생산업체인 삼성항공은 KTX-2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등 사업 개요와 체계개발 추진일정, RFP 및 Proposal 작성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발표했다.

KTX-2 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KFP사업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 한국공군이 소요로하는 고등훈련 및 경공격용 초음속기의 개발/생산을 통해 조립생산 수준의 국내 항공기산업을 독자개발 수준으로 육성하며,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의 증강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국방부가 KFP사업의 Offset(절충교역) 형태로 수행



94년 10월 7일 공군주최 항공우주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일반에 최초 공개된 KTX-II 모형.

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동 KTX-2 체계개발 방식을 국제협력 및 국내업체 주도 연구개발 형태로 결정한 바 있다.

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모두 4대(비행시제 4대, 정/동하중 시험용 구조시제 2대는 제외)의 시제기를 개발하는 등 사업은 정부관리하에 삼성항공이 국내 산학연군 협력체제를 구축해 고등훈련/경공격용 항공기 체계, 훈련체계, 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삼성항공은 7월말까지 사업참여 희망업체에 RFP(제안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8월말까지 접수된 Proposal(제안서)를 기초로하여 해당업체 실사를 9월까지 실시 이를 평가, 반영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항공(Saudia)

항공기 구입계획 확정

Airbus 제제, 보잉/MD제품 구매

사우디아라비아항공은 항공기 60대 이상을 구매하는 62억 달러 규모의 구매계획을 최근 마무리 했다. 근래에 보기드문 대규모인 이번 구매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는데 6월말 파리에어쇼에서 보잉기종과 MD기종을 섞

어서(Boeing 70%) 구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매 기종은 보잉기종이 777-200 23대, 747-400 5대이고 MD 기종은 MD-90 20대, MD-11 15대로 알려졌다. 한편 MD-11 15대중 상당수는 사우디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사용될 예정이다.

엔진의 구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MD-90 항공기용으로는 IAE의 V2500엔진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기종에 대해서는 GE, P&W, RR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항공의 이같은 결정은 클린턴 미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고 Airbus는 배제키로 했다고 발표하고도 18개월이나 걸렸다. 62억달러에 이르는 이번 계약에는 미 수출입은행이 지불보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인도는 199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해양경찰대 러시아제 헬기 2대 인도 경협자관 현물상환 KA-32C 기종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 러시아로부터 KA-32C 헬리콥터 2대를 인수했다. 9월까지 2대를 추가로 인수 총 4대



해양경찰청으로 인도된 KA-32C 헬기가 An-124 수송기에 탑재되고 있다.

를 운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도 93년말부터 KA-32T 6대를 인수, 운용중에 있는데 그중 4대가 대 러시아 경협차관을 현물로 상환받은 것이다. 동 헬기는 꼬리로터가 없고 주로터가 2중으로 배열되어 기동성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 기종 헬기 수입에 관한 중계는 LG상사가 담당하고 있다.

MD-11 개량 항력감소, 96년 생산

MD사는 MD-11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개량을 위한 비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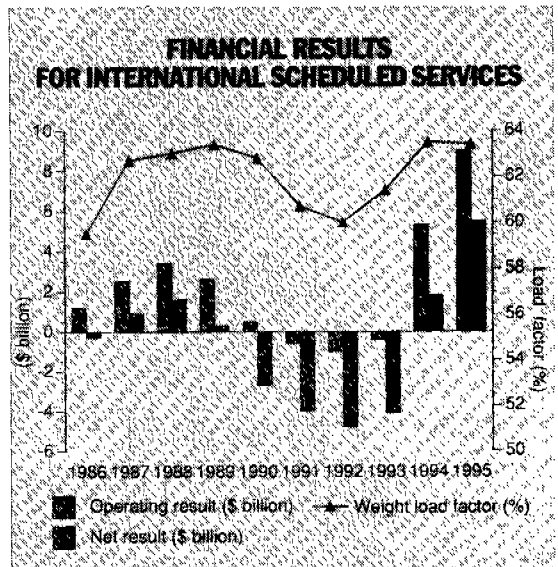
개량형(MD-11ER)은 1996년에나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력을 감소시키고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안점이다. 이번 4단계 MD-11 개량사업은 TOPAS 컴퓨터 이륙성능해석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1996년 1/4분기중에 FAA 및 JAA로부터 감항증명을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항력 감소목표는 12%인데 이미 Flap hinge fairing과 seal의 개량을 통해 0.5%의 항력감소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Horizontal elevator bias를 개조하여 0.4%의 항력감소를 달성했다.

항공운항사 흑자 전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계속 줄어들 경우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이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IATA는 지난해에 18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4년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하고 금년에는 5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운항사업(국제선)은 지난 4년간 세계적으로 200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세계 운항사의 수익이 4년간(90~93년)의 적자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Load Factor(탑승률)은 64%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